

“개혁 완수위해 당정청 하나 되겠습니다”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이춘석 사무총장. /연합뉴스

민주·정부·청와대 회의...文정부 100일 '순항' 자평

아동수당 등 세부계획 발표...정기국회 앞 전열정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맞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제도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전열을 정비했다.

시급한 현안인 '살충제 계란' 파동 대책 뿐 아니라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100대 국정과제의 자질없는 시행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과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직후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결과와 의미를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논의 내용을 직접 전했다.

이들은 아동수당의 경우 연내에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고, 기초연금의 경우 내년 4월부터는 25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하며 관련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계란도 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전량회수해 폐기하겠다고는 원칙을 천명했다.

당정청의 이 같은 일사불란한 발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70%대 후반에서 고공행진하고 당 지지율도 50%를 웃도는 상황에서 '포스트 100일' 개혁 드라이브를 준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즉, 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아동수당 시행과 기초연금의 확대를 앞세워 지지율을

계속 떠받치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100일 이후 주요한 국정 시험대가 바로 이번 정기국회가 될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 아래 당정청의 '전열 정비'를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가 100일 동안 국민이 많은 기대를 하는 만큼 비교적 순항해 왔다고 생각한다”면서 “200일, 500일 1000일을 갈 때까지 비슷한 긴장감을 갖고 성공하는 문재인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00일 이후 가을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예산을 편성하고 본격적으로 구조적 개혁에 관한 법안도 제출되고 있다”면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그리고 이낙연 총리께 잘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추 대표는 “우리는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더 낮은 자세, 겸허한 자세로 국

정개혁에 임해야 한다. 높은 지지율은 국민의 기대이고 동시에 무거운 숙제를 주는 것”이라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당정청 '삼각공조'의 중요성도 부각됐다. 국회 귀빈식당에 마련된 회의장 테이블부터 '삼각행' 구도로 배치한 가운데, 추미애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의 민심 삼박자가 잘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민생과 경제도 살아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추 대표 이외에 민주당의 우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박 수석대변인,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김정우 비서실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이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청와대에선 장 정책실장과 함께 김수현 사회수석, 전병헌 정부수석, 변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安 '서울시장 출마론'

“모든 가능성 열어놔”...與, 박원순 거취·선거 영향 '축각'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안 전 대표의 행보와 선거 구도 변화에 축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데다 후보군도 야당보다 더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에 따라 지방선거의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낙관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안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선거 구도가 크게 틀릴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안 전 대표는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묻는 말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겠다”면서 “지방선거를 잘 치르는 게 제 목표”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지난 15일 광주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출마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에 보탬이 된다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대표의 이런 발언은 일단은 원론적인 답변이라는 게 일반적 평가다.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쟁 후보인 천정배 전 대표가 차출론을 제기하면서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문제가 화두가

되자 여기에 안 전 대표가 반응한 것이라는 차원이란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대선 후보였던 안 전 대표가 서울시장으로 '하향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지방선거 결과가 국민의당 존립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고, 서울시장 후보로 안 전 대표 이상의 득표력을 가진 후보가 없다는 점에서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 경우 민주당의 서울시장 경쟁 구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민주당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것으로 마음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미애 대표, 박영선·우상호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다.

이 중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박 시장의 경우 안 전 대표가 출마할 경우 '양보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당시 여론조사 지지율이 크게 앞섰던 안 전 대표가 2011년 보궐선거 때 박 시장에 서울시장 후보를 양보한 것이 당시 박 시장의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과거 평가 때문이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한국당 '보수 통합론'

최고위 연석회의 “지방선거 승리 위해 바른정당과 합쳐야”

자유한국당 내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정당과의 '보수 대통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국당이 16일 오전 개최한 최고위원 3인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수세에 몰린 보수 진영이 분열된 상태로 지방선거를 치르면 참패가 명약관화한 만큼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에는 진박(진박근혜), 비박(비박근혜) 등 성향과 관계없이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다.

권성동 의원은 “우리는 큰집이다. 작은집(바른정당)을 향해서 그러한 명분을 갖고 움직일 때 당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라며 당내 설문조사라도 실시해 볼 것을 제안했다.

김학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의 힘을 모아야 한다”, 홍일표 의원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보수통합이 자연히

될 것이라는 생각은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고 각각 주장했다.

강성호 의원은 “지역에 다녀보면 '보수가 갈라져 있는데 문재인 정부 맞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 눈에는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다 미운 오리 새끼들”이라며 “과거 잘못을 넘어서고 우리 모두 속죄하고 다시 통합하는 것이 보수가 사는 길”이라고 각각 주장했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 “인위적 통합은 오히려 부자연스럽다”며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새 선장을 뽑는 국민 의망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시도할 경우 주도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 대상에서도 배제돼 지방선거에서 완패할 수 있다는 위기감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이수 현재소장 임명동의 31일 처리...국감은 추석 이후로

4당 원내대표 일정 합의 정기국회 내달 1일 개최 국감 10월 12일~31일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를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또 장기 표류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임명 동의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

난 16일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된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는 ▲9월 1일 개회식 ▲4~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14일 대정부질문 ▲15~27일 상임위와 법안심사 소위 활동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9월 28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가 심사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감사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 동안 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9월에,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들은 10월에 국감을 진행하자는

주장을 폈다. 국감 시기가 이룰수록 현 정권보다는 지난 정권에 대한 감사가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국감 개최 시기로만 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오는 3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6월 8일 종료됐으나 여야 대치 정국을 거치면서 인사청문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표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헌법 개정 논의도 차질없이 추진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이날 하순부터 진행되는 전국 순회 개헌 관련 대국민 보고회 및 토론회에 국회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의장 주재 만찬 회동은 여야 원내대표 외에 원내수석부대표도 참석한 가운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연주 원내수석부대표가 8·2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입후보함에 따라 재선인 권은희 의원을 새 원내수석부대표로 임명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h3>부안 숙박시설(모텔)</h3> <p>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p> <p>격포해수욕장, 대명리조트, 해변가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2개동 룸43개) 직접 운영시 월 수익 1500만원 가능</p> <p>감정가 16억 → 매매가 10억 (용 6억, 보 1억, 실투자 4억)</p> <p>직매 010-7384-7800</p>	<h3>수익성상가매매</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동 상가 (6층) 45평 → 5,000만 리모델링 완비 → 즉시입주, 시비무료, 임대가능 매가 1억6천 → 9천(용5천) ◆ 상무지구 상가(4층) 45평 → 케이원상가 → (보2천, 월130만, 용7천) 매가 2억5천 → 1억9천 ◆ 상무지구 상가(6층) 19평 → 롯데마트 앞 → (보500만, 월40만, 용2,500만) 매가 1억 → 7천5백 ◆ 경기 평택시 토지 매입할부 → 전원주택, 농지 투자, 개발 → 평당 130만원 ◆ 서울 용산구 청파동상가 → 서울역 3분 → 상가 (오피스텔2개) 보600, 월70만 / 매가1억2천 <p>010-6670-9800</p>	<h3>영광주택</h3> <p>전원주택(영광읍)</p> <p>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p> <p>내부개끗</p> <p>토지 151평</p> <p>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감정가 1억 1천 매가 9천8백</p> <p>010-2699-5300</p>	<h3>경매 교육</h3>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초실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부터 ~ 실전 입찰까지 ② 실전투자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실전 교육듣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p> <p>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강의</p> </div> ③ 프리특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매 부동산 같이 하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원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
--	--	--	---